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7. Vol. 29, No. 1, pp.125-143
ISSN 1225-1488
http://dx.doi.org/10.19031/jkheea.2017.03.29.1.125

예비 가정과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이윤정*[1] · 김유경* · 송지은* · 안순희* · 이연숙* · 이예영* · 이하나* · 임정하* · 정순화* · 정민영* · 한영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고려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Life Culture Education Program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aimed at Pre-Service Home Economics Teachers

Yoon-Jung Lee*[1] · Yookyung Kim* · Jieun Song* · Soon-Hee An* · Yonsuk Lee* · Yhe-Young Lee* · Hana Lee*
Jung Ha Lim* · Soon Hwa Chung* · Min-Young Jung* · Youngsun Ha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Center for Human Ecology Research,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program aimed at preparing the pre-service teachers to teach about North Korean family life culture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by promoting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e educational contents were developed to reflect general aspects of North Korean family life. The program was implemented with 35 undergraduate students in a home economics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program consists of 15 units of 150-minute instructional sessions. The first three introductory sessions dealt with the definitions of family life culture and multiculturalism, as well as a historical review of South-North relationship. The following nine sessions were devoted to North Korean family life culture in five different domains: consumption and leisure, family and child-caring, food and dietary life, housing and neighborhood life, and clothing/fashion. During the final two weeks, pre-service teachers conducted mock-teaching.

For evaluation, pre- and post-session scores on general teaching efficacy and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were compared using paired t-tests. The pre-/post-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program was successful i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wo Koreas of pre-service teachers.

1) 교신저자: Lee, Yoon-Jung, 145 Anam-ro, Seongbuk-ku, Korea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2-3290-2326, Fax: 02-927-7934, E-mail: yleehe@korea.ac.kr
2)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3045034)

Key words: 예비교사(pre-service teachers), 북한가정생활문화(North Korean family life culture), 학교 통일대비 교육 프로그램(School education program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Ⅰ. 서 론

최근 북한은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26,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북한 체제의 붕괴가능성과 통일전망에 대한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Park, 2006; Rhee & Nah, 2007; Ryoo, 1999; Ryu, & Kim, 2012). 그러나 지난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괴리를 고려한다면, 통일 이후 가치관 및 생활방식 차이로 인하여 사회혼란이 예측된다. 분단이 이루어진 지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적 체제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 경제생활 수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남북한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 경험 차이, 종교적 마찰, 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가족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갈등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hee et al., 2000).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측면의 대비 및 입법방향의 설정, 법제정비, 통일비용마련 등의 준비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이념적,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모색 역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대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안정 구축을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Park, 2010, p. 198)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어야 할 주역으로서 통일에 따르는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로서 이념적 한계에서 벗어나 통일의 새로운 가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세대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일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게 되며, 동시에 통일 이후에 사회, 문화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겪게 될 세대들이기도 하다(Bang, 2007). 그러나 분단 이후 출생한 세대들에게는 남한과 북한의 분단 상황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며, 따라서 이들 세대에게 통일은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이라는 정체성 측면에서의 당위성만을 갖지는 않는다(Cho & Han, 2014). 특히 청소년들은 통일이라는 과제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ang, 2007).

이처럼 청소년들이 통일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통일실현의 사명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도에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Jo, 2007). 이후 도덕, 사회, 국어 등 다양한 교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가정생활분야에 대한 통일대비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단위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와 통일 후 사회적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가올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통일세대를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교육적 이해와 생활문화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 또는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세대를 살아가게 될 청소년들이 남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하여 이해하고, 통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대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가정생활문화의 변화 양상 및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의 차이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한 교육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내용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하다. 교육내용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에게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준비시킴으로써 교사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생활문화의 주요 부분을 이루는 의, 식, 주, 소비, 가족생활과 관련된 전방위적이고 구조적인 탐구를 통하여 개발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과 이러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개인의 가치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일 뿐 아니라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될 세대(Bang, 2007)라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중등교사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교육 등 관련학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교사들의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을 고양시킴으로써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사회적 지원 정책, 교류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 한민족 내 문화의 다양성과 상대주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문헌고찰

1.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프로그램

통일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2016년에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들 63.1% 중에서 초등학생은 73.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데 비하여 중학생은 59.6%, 고등학생은 49.2%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6). 이는 통일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의 비율(86.2%)이 고등학생의 비율(64.6%)보다 높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 교육의 효과가 지대함을 보여준다.

통일부에서는 2000년 이후 통일교육지침서를 통하여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일교육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서에 따르면 통일교육은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는 것”(Ministry of Unification, 2012, p. 9)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 활성화 지침에 따라 현재 도덕, 사회 등의 교과에서는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국어(Seo, 2016), 역사(Kang & Lee, 2016), 초등 실과(Chung & Hwang, 2007; Chung, 2008; Chung & Kim, 2008) 등의 교과에서도 통일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관심을 가져 왔으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주로 ‘특별활동 및 재량수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 통일교육 시범학교의 효과성 지표를 개발한 Y. Kim(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통일교육 시범학교에서 50여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통일의식고취, 통일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Chung과 Hwang(2007)은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생활관련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초등실과가 통일교육에 접근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와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의 해당 교과를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음악, 미술, 체육의 예체능과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초등실과에서의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Chung(2008), Chung과 Kim(2008) 등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 소학교 교과서 등의 문헌 자료를 조사,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를 의생활(의복 구입, 의복착용 스타일, 의복관리), 가족 및 소비생활(가족관계, 북한 가정 일의 분담, 자원의 관리, 소비생활), 식생활과 주생활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우리나라 통일교육 및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안에서 초등 실과 교과의 역할과 현재의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의생활, 가족 및 소

비생활, 식생활 및 주생활 영역에서의 통일교육 목표, 방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통일교육지침서(Ministry of Unification, 2012)에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초등학교에서 습득한 통일과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토론식 교육을 통하여 남북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Lee, 2014;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학생들의 60%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나, 역사적으로 한민족이라는 점 또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의 이유보다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 또는 국력강화 등의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49.8%)가 통일비용(18.9%), 민족적 이질감(14.9%),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11.9%)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4). 이같이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했던 것에 비하여 통일로 인한 득실을 중심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이 통일의 당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Baek과 An(2016)의 연구에서도 국민정체성을 시민적 정체성과 민족적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민족적 정체성보다는 시민적 정체성이 다양한 측면의 통일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북한을 동일한 민족집단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한국의 국민 정체성에서 혈통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과 연관된다고 보았다(Han, 2011, Baek & An, 2016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문제를 민족성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시민적 정체성 함양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준에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식을 학습케 하거나 통일의 당위성을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넘어 자유, 평등, 민주, 인권, 복지 등의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북한의 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 제공뿐 아니라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사의 정치적 입장 및 견해와 관련되는 것이다. 통일교육지침서(Ministry of Unification, 2012)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남한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을 의미하는 '남남갈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Hwang (2016, p. 659)은 이러한 극복 방법으로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헤르 합의(Beutelsbacher Konsens)와 같은 합의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함을 역설하며,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제시되는 3가지 원칙들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교화 또는 주입을 금지할 것,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학생은 어떤 정치적 상황과 그 자신의 이익(또는 이해관계) 상황을 분석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이익(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당면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가정생활문화 교육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통하여 정치적인 관점을 강요하기 보다는 토론을 통한 학생들 내에서의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남북한의 차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통합을 위한 구심점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통일을 대비한 북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 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외교, 문화, 여성, 가족, 종교, 협상 등의 사회적인 주제와 탈북자 관련 주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Cho, 2010). 그 가운데 가정생활분야의 통일을 대비한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연구와 남북한 비교연구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가정생활문화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생활분야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북한의 가족생활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의 가족을 비교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졌다. 북한의 가정교육과 부모의 권위 및 가정의례(Kim, 2011), 관혼상제 등 가정의례 실태와 변화상(Song, 2006) 등의 연구에서는 북한 가정의례의 변화상을 통해 남북한 가족생활을 비교하였으며, 남북한 생활문화의 이질화와 통합(Rhee et al., 1997, 1998) 등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한 영역으로서 북한 가족생활의 실태와 남북한 가족생활을 비교하였다. 또한 국가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비교연구(Do, 1999; Kang, 2010)나 가족관, 결혼관, 자녀관, 부부관, 가족부양관을 포괄하는 남북한 가족가치관의 비교(Chung & Lim, 2014)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남북한 가족가치관과 가족관계 실태 및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남북한 유아교육과정이나 보육시설 등 영유아양육환경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들(Chi & Kim, 1999; Heo, 2010; Kim, 1995; Lee, Seo, Kim, & Park 2011; Lim, 1996; Seong & Kim, 2001; Yang, 1996)이 주로 수행되었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북한 양육가치관을 다룬 연구(Kim & Choi, 2008), 자녀가치, 자녀양육목표, 자녀양육의 주체, 영유아보육내용을 중심으로 남북한 자녀가치관을 고찰한 연구(Lim & Chung, 2015)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녀양육과 가족관계 관련용어의 남북한 비교연구(Lim, Chung, & Song, 2016)도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남북한 자녀가치관과 자녀양육 실태 및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여가활동별 북한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북한음악의 경우 북한 인민가요 전반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Lee, 2012), 북한 음악전반에 대하여 제시한 연구(Joo, 2015)가 있다. 북한의 체육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들(Ahn, 2002; Hyun & Ahn, 2015; Hyun, & Kim, 2014)이 발견되었고, Lee(2011)은 북한 조선중앙 TV 편성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Kim (2013)은 북한 TV 드라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Lee(2000)과 Ahn(2015)은 북한영화와 연구현황을 분석하였고, Kim, Han, & Lee(2006)은 북한주민들의 관광실태 및 제약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Kang(2015)은 북한의 주요 명절과 주민들의 여가생활 전반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를 기초로 북한 여가생활의 특징 및 남북한 여가생활실태와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한편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에 관한 선행연구들(S. Kim, 2012; Rhee et al., 2000; Kim, 2014)에서는 북한의 주민들의 소득, 소비수준, 장마당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초기정착지원금, 그들의 소득 및 소비생활 실태, 저축현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에 관하여 제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게 되어 나중에는 파산 지경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Park & Won, 2010; Bae & Chung, 2015; Rhee et al., 2000). 이들 자료를 기초로 북한 경제생활의 특징 및 남북한 소비생활실태와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 식생활 문화 연구는 1990년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기점으로 남한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증가가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Chang과 Hwang(2000)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식생활양상과 더불어 식량사정을 언급하였으며, Hwang과 Chang(2001)은 북한의 식량부족 이후의 대체식품 및 계층에 따른 식생활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체로 이 시기의 연구들은 어려운 시기에 탈북한 주민들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통해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Choue, Hong, & Yim, 1997; Park et al., 1997, 1999). 최근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적인 식습관 및 남북의 식생활 차이 인지도를 다룬 연구(Kim & Jeong, 2011)와, 북한이탈어린이와 남한 어린이의 영양섭취상태 및 식습관 조사를 이용하여 식문화를 비교한 연구(Lee & Nam, 2012)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명절 인식도를 조사하여 한국의 명절음식과 비교한 연구도 보고되었다(Choi, Kim, & Kang, 2015). 이들 자료를 기초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이해, 식생활 문제, 식생활 정책 실태와 비교를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북한의 의생활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북한의 전통복식 고수에 대한 논의, 북한의 의생활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현대 북한의 의생활 실태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의류 산업과 관련한 연구 등이 있다. 북한 의생활의 특징을 전통복식의 고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Kim(2007)은 북한 당국이 여성에게는 한복차림을 권장하여 민족성을 고양시키나 남성에게는 양복을 배급하여 한복을 입은 남성을 찾아보기 힘들

다는 점을 들어 북한에서 조선옷이라 불리는 전통복식의 의미가 남녀의 성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You와 Im(2006)의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남북한 복식문화를 북한의 의생활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연구자는 10년 단위로 북한의 의생활 특징을 서술하였으며 북한의 문예 예술 사조의 흐름과 사회주의 체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천과 관련한 논의는 통일부에서 발간하는 통일백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5). 통일부는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하나된 국가를 위해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의생활의 변천을 소개하였다.

Tudor와 Pearson(2015)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에서 생활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라는 고립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장마당을 통한 패션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배급제도의 붕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다양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진'을 패션의 도시로 언급하면서 항구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전파된 한류문화와 더불어 유행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Choy(2016)는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의 의생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이내의 북한의 의생활 변화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퍼스트레이디 이설주의 등장과 한류 문화의 영향이 북한 내 패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설명하였고, 대외무역의 확대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패션에 있어 많은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분석하였다. Kim(2016)은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통하여 북한에서의 의생활과 남한에 온 이후의 의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이미 북한에서도 장마당을 통하여 일본, 남한, 중국 등으로부터 들어온 패션을 경험하였으며, 북에서의 여성의 옷차림에 한국 드라마 등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력 또는 물의 부족으로 주로 손세탁을 하는 등, 의복의 세탁이나 관리 분야는 매우 낙후된 상태에 있고, 특히 장마당을 통하여 들여온 의복의 경우 브랜드나 섬유조성 등의 정보가 제거되어 북한이탈여성들은 의복의 선택과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류산업과 관련된 연구는 개성공단 중심으로 남북한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산업표준화의 필요성 제기로 인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남북의 의류 산업표준체계는 외형을 비롯하여 분류체계, 구성항목, 용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규준이 필요함을 논하였다(Park, Kim, & Yun, 2003). 또한, Lee와 Choi(2012)는 북한 섬유 및 의류산업에 대해 수출통계자료 및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한 종단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 섬유 및 의류산업에 개방형 정책을 제시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기업 운영에 단점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해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Lee, Choi, Lee와 Lee(2015)는 남북한 의생활 관련 용어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남북한의 의생활 문화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사회체제의 변화에 다른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 의생활 관련정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정생활분야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북한 가정생활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과 남북한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양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치관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을 담당할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프로그램은 가정교육과가 개설된 서울의 4년제 대학교에서 15주 정규학기 중의 '가정과 문화'라는 제목의 수업으로 실시되었다. '가정과 문화'는 필수교과 중 하나로 총 35명의 학생들, 즉 예비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31명이 사전-사후검사에 모두 응답하였다. 참여한 예비교사들 중 23명이 여학생, 8명은 남학생이었다. 참여 예비교사들은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자들로 평균 연령은 22.09세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Variable	Division	Frequency(%)	Total
Gender	male	8(25.8%)	31(100%)
	female	23(74.2%)	
Year of Birth	1992	3(9.7%)	
	1993	8(25.8%)	
	1994	9(29.0%)	
	1995	11(35.5%)	
Monthly Household Income	\1million~\3million	4(13.0%)	
	\3million~\6million	7(22.6%)	
	\6million~\8million	5(16.2%)	
	\8million~\9million	5(16.2%)	
	\10million and over	7(22.6%)	
	no response	3(9.7%)	

2. 연구 절차

1) 프로그램 개발 모형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Figure 1>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과정

⑴ 준비 단계

문헌고찰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였다.

⑵ 개발 단계

교수-학습과정안을 기초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5년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각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들과 석, 박사과정 연구원 11인으로 구성된 내부 연구자 회의를 통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목표에 따른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교육내용은 2015년 9월~12월에 '가정과 문화'라는 동일한 강좌를 통하여 1차적으로 시연되었으며, 이 수업에서 강연자들과 예비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내용의 구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⑶ 실행 단계

2015년 2학기의 1차 시연을 통하여 보완·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은 2016년 1학기, 즉 3월~6월 사이에 대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150분짜리 15주차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진이 공동개발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수매체(강의, 조별활동, 발표, 모둠활동지, ppt 등)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15주 프로그램의 도입부분인 1-2주차, 그리고 마무리 부분인 13-15주차는 책임교수가 진행하였으며, 3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책임교수와 각 분야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가 팀티칭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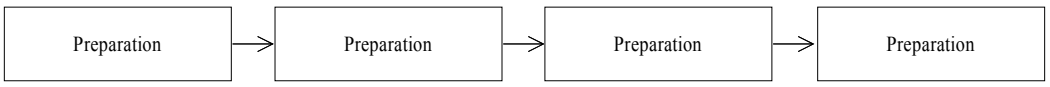

Figure 1. Stages of Program Development

(4) 평가 단계

실행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지는 교육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포함하도록 자기응답식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사후 검사도구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주민 또는 통일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관한 10문항, 북한의 소비생활 7문항, 여가생활 7문항, 가족생활 7문항, 식생활 7문항, 의생활 7문항, 주생활 4문항의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각 해당 분야의 전공교수들과 석, 박사과정 연구원 11인이 내용타당도를 고려하여 3회기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문항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북한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는지 안다' 등의 지식측정 문항, '북한의 가정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사람들의 소비생활 전반에 관심이 있다', '북한의 가족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태도측정 문항,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에서의 소비생활을 안내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의복 관리를 도울 수 있다' 등의 기능측정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내적합치도는 각각 0.91, 0.96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사전검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3개 문항과 '북한과 관련된 수업이나 특강, 세미나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다문화와 관련된 수업이나 특강, 세미나 등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등의 개방식 문항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성적이 부여되는 수업의 일부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책임교수가 개별학생들의 응답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하되 번호를 부여하고 각 학생의 번호를 사후검사 때까지 학생대표가 보관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사전-사후 검사 평균점수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실질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Cohen의 d값을 산출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개요

본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통일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 가정생활의 전반에서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예비교사들의 통일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둘째,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의 구체적 일면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셋째, 중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의 수업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식 수업과 토론,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자들은 문헌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가정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다문화적 시각에서 북한 생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결정하였다. 사전조사의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예비교사들 중 북한 관련 강연을 들어보거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수업을 들었던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지식수준은 매우 낮았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남한 청소년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Lee et al., 2016)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는데,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파악된 내용 중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에 비하여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정생활문화의 정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남북한 관계의 역사, 북한의 경제적 체제와 정치적 상황 등 교사로서 배경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도에 필요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관련된 기본지식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총 15주 프로그램 중 첫 3주간은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4주차부터 12주차까지

의 9주간은 가정생활문화의 세부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각 분야에서 다뤄야 할 내용의 분량에 따라 소비/여가생활, 가족생활, 의생활, 식생활에 대해서는 각 2차시씩, 주생활에 대해서는 1차시가 배정되었다. 각 차시는 15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00분간의 강의식 수업과 50분간의 토론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별과제를 개발하였으며, 13~14주차에는 각 조별과제의 모의수업을 진행하였다. 동료학생들과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함께 모의수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에 참여하였다. 15주차는 마무리로 한 학기 수업에 대한 전체적 결론을 제시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 학습목표와 내용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2.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15차시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각 차시별 수업의 목표와 진행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 프로그램 소개 및 인사

- 수업목표: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소개 및 사전검사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사전지식 조사를 위한 사전검사 설문지 작성. 프로

Table 2.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of Each Unit of the Program

Unit	Learning Objectives and Contents
Unit 1. Introduction	- Introduction and general overview of the program - Pre-test
Unit 2 & 3. General Information	- General information on family living culture - General overview on South-North relationship
Unit 4. Family and Consumer Behavior in North Korea	- Family and consumption in North Korea - Consumer behavior of North Korean refugees
Unit 5. Leisure Cul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 South Korean's leisure life - Leisure life in North Korea -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n's leisure life
Unit 6.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 Comparison of terminologies in family domai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in North Korea - Comparison of family val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Unit 7. Parenting in South and North Korea	- Childbirth and parenting in North Korea - Comparison of the values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Unit 8. Housing Culture in North Korea	- Housing culture in North Korea - Neighborhood life in North Korea
Unit 9.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Korea	- Understanding food culture in South and North Korea - Dietary lif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Unit 10. Problems and Policies of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 Problems of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Korea - Policies related to food and dietary life in South and North Korea
Unit 11. North Korean Fashion in 1950-2000 within the Socialism System	- Comparison of terminologies in clothing life - North Korean clothing life - North Korean fashion style
Unit 12. Current States of North Korean Clothing	- Clothing/fashion life depicted in the media - Clothing/fashion life from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Unit 13 & 14. Mock-Teaching Activities	- Mock-teaching (One 45-minute sessions per group)
Unit 15. Wrap-up	- Wrap up - Post-test

그램의 취지 및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과 통일 대비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

2차시: 일반적인 배경정보

- 수업목표: 북한 가정생활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보 전달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가정생활문화의 정의, 다문화 감수성의 의미와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남한에서의 생활 등에 대한 설명과 토론

3차시: 일반적인 배경정보

- 수업목표: 북한 가정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보 전달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남북한 관계에 관한 역사적 배경 및 통일 전망과 가정생활의 변화에 대한 강연 및 토론

4차시: 소비생활

- 수업목표: 남북한의 경제상황과 소비생활 실태의 이해 및 적응 지침 제시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북한시장에 대한 영상자료와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다룬 영상자료와 피피티를 이용한 북한경제상황 및 소비생활 실태 전반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소비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계획주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북한에서의 화폐를 이용한 장마당 소비활동 실태, 불안정한 시장구조를 가진 북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의식 결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경제상황에의 적응문제 및 대처)

5차시: 여가생활

- 수업목표: 남북한 여가생활 실태의 이해 및 올바른 여가문화의 정립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여가개념의 차이와 북한의 전반적 여가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여가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한의 여가실태, 집단주의 정신 강화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여가생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북한 인민가요, 노동력과 국방력 강화 수단으로서의 북한의 체육활동, 정치사상 고양 수단인 북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6차시: 가족관계

- 수업목표: 남북한 가족관계 실태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향 정립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차이와 유사점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가족생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이성교제, 배우자 선택, 결혼 풍속, 부부관계, 고부관계 등 북한의 가족관계 실상파악과 남북한 비교, 가족가치관의 구성요소인 가족관, 결혼관, 부부관, 가족부양관에서의 남북한 비교, 남북한 가족관계와 가치관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점, 탈북청소년들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중 가족생활 관련 내용 소개를 통한 교사로서의 기본지식 함양)

7차시: 자녀양육

- 수업목표: 남북한 자녀양육 실태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향 정립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자녀양육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자녀양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 자녀출산, 자녀양육목표와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그리고 대리양육기관인 탁아소와 유치원의 실태, 자녀가치·자녀양육목표·자녀양육의 책임·영유아보육 및 교육 내용에 기초한 남북한 자녀가치관의 비

교, 탈북청소년 및 남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프로그램 중 자녀양육 관련 내용을 소개를 통한 교사로서의 기본지식 함양)

8차시: 주거 및 이웃생활

- 수업목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 실태의 이해와 적응을 위한 방향 정립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의 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주거 및 이웃생활 적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의 주택 형태, 주택 소유 및 거래방식, 전자기기 소유실태 및 에너지 수급실태, 이웃관계 및 공동체 생활에 대한 남북한 비교)

9차시: 식생활 I

- 수업목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이해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식생활 및 식문화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 음식 소개를 통해 식문화 개관, 식생활문화와 통과의례음식, 세시음식 소개를 통한 공통적인 한국의 전통음식 특징, 남북한 음식 소개를 통해 다양한 음식의 이해와 남한과 북한음식의 차이점을 소개)

10차시: 식생활 II

- 수업목표: 남북한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의 이해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식생활 문제 및 식생활 정책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남북한의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의 차이점 비교, 남한의 섭식장애, 결식 등의 문제와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야기되는 생애주기별 영양문제와 해결방안, 남한의 국민공통식생활 정책과 북한 식생활 정책의 의도와 방향, 김정은 시대의 먹거리 정책, 북한의 어린이 건강교육)

11차시: 의생활 I

- 수업목표: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의 이해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북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북한의 의생활 용어, 배급제도와 의복난, 단속, 의복관리 및 의생활의 변화양상, 사회주의 정권 수립과 더불어 '천리마 운동', 평양에서 개최한 제13차 세계학생축전, 고난의 행군, '7.1 경제 조치' 등 주요 사건과 시대별 의생활의 특징)

12차시: 의생활 II

- 수업목표: 북한 의생활 관련 정책의 이해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와 동영상을 이용한 남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에 대한 강의 및 모둠활동지를 통한 통일대비 의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북한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당지도자들의 패션 및 외모를 통한 이미지 정치의 활용, 남한 언론에서의 북한 이미지 정치에 대한 반응,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북한의 의생활 모습,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의생활 관련 어려움, 고난의 행군 이후 풀뿌리 자본주의를 경험한 세대인 '장마당 세대'들의 가치관과 이전 세대와의 차이, 북한의 '패션', 국경도시와 평양에서의 생활상의 차이, 북한주민들의 의류제품 구입, 유통, 관리, 소비 과정)

13·14차시: 모의수업

- 수업목표: 모의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로서의 역량 강화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모의수업 조별과제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6개의 조로 나뉘어 각 조별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차시 분량의 수업(각 45분)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으며, 그 중 한 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기초로 실제 모의수업을 수행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교수법을 동원하여 한 학기 동안 배운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을 중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예: 식생활 분야의 수업을 담당한 조에서는 북한의 조리법에 맞게 조리한 음식을 가져와 수업시간에 시식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북한음식에 대해 이해하게 하고 맛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역할극 등을 통하여 남북한 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간접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퀴즈를 통하여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남한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모의수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조는 동료평가에 참여하여 각 수업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수행태도 및 내용전달력,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선정 타당성, 내용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였다.

15차시: 마무리

- 수업목표: 15차시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와 소감 교류 및 사후검사
- 수업진행방법 및 내용: 피피티를 이용한 15차시 수업의 내용 정리, 북한 가정생활에 대하여 배우면서 느꼈던 바를 적어보게 하는 자기성찰의 시간 및 통일대비추후 노력방안 토론. 사후검사를 위한 설문지 응답.

3.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식/기능/태도 등을 평가하는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분석은 각 분야의 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4).

표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에 관련된 지식/기능/태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전체 평균은 2.49점에서 4.21점(t=24.25, p<.001)으로 예비교사들의 지식과 태도 면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전체 프로그램 평균뿐 아니라 모든 하위 분야 프로그램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실질적인 유의성을 나타내는 Cohen의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프로그램 전체의 효과는 Cohen의 d값이 3.60으로 나타나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에서 전반적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뿐 아니라 하위영역별로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차시별 수업목표인 북한 가정생활의 이해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보와 북한 가정생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배경정보(2, 3차시)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상황과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 실태(4, 5차시), 남북한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실태(6, 7차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 실태(8차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9, 10차시),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 의생활 관련 정책(11, 12차시)에 대한 지식이 교육을 통해

Table 4. Comparison of Pre-test and Post-test Scores(N=22)

Topic Areas	Pre-test		Post-test		Paired *t*-value	Cohen's *d*
	M	*SD*	*M*	*SD*		
Program in General	2.49	0.43	4.21	0.52	24.25***	3.60
General Attitude on Unification	3.63	0.58	4.26	0.53	7.04***	1.13
Consumption & Leisure	2.34	0.61	4.22	0.56	18.78***	3.21
Family & Child-caring	2.28	0.54	4.17	0.70	15.33***	3.02
Food & Dietary Life	2.45	0.64	4.23	0.60	13.38***	2.87
Clothing & Fashion	1.60	0.53	4.14	0.70	18.53***	4.09
Housing & Neighborhood Life	2.05	0.86	4.22	0.64	12.63***	2.86

*** p <.001.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태도나 기능면에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15차시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이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지식, 태도, 기능을 고양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에 대한 하위영역별 예비교사들의 사후 평균점수가 사전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예비교사들의 통일에 일반적인 태도가 프로그램 실시 후 4.26으로 하위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통일 후 한반도를 이끌어가게 될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예비교사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여주고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선행연구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Lee et al., 2016)을 지도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남한 청소년을 위한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프로그램을 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지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등 가정생활의 전반에서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은 준비-개발-실행-평가의 단계로 이루어졌다. 문헌고찰과 사전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내용에 근거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은 서울 소재 대학교의 가정교육과 3～4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 3월～6월 사이에 시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총 15주로 이루어졌는데, 1～3주차는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한 수업으로서 진행하였고, 4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9주간은 북한의 소비/여가생활(2차시), 가족생활(2차시), 의생활(2차시), 식생활(2차시), 주생활(1차시)에 대하여 100분간의 강의식 수업과 50분간의 토론으로 진행하였다. 13～14주차에는 각 조별로 1차시의 수업에 대한 모의수업과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프로그램은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전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하위 분야 프로그램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교육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 가정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정보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상황과 소비생활 및 여가생활 실태, 남북한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실태, 남북한 주거 및 이웃생활 실태, 남북한 식생활 실태와 식문화, 식생활 문제와 식생활 정책, 북한 의생활 교육 및 의생활 실태, 의생활 관련 정책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태도,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생활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하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가와 소비생활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여가생활 교육프로그램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고, 서로 다른 여가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인지력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상적 삶이 포함되는 여가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비교사들이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양질의 여가생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비생활 부문에서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자신의 수업시연을 준비하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계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 북한의 소비에 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면서 북한의 시장이 생각보다 발달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수업평가가 있었다. 북한의 소비에 관한 강의로 북한의 소비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었던 예비교사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 할 수 있었으며 예비교사들이 추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고 볼 수 있다.

가족관계와 자녀양육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업 후 예비교사들은 6, 7차시

수업 진행 이후 우리와는 상이한 북한의 가족생활이나 자녀양육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가족생활과 관련한 통일 대비 교육의 필요성을 지각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생활과 관련한 가치관은 단시간에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상대의 문화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자신과 상이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며, 적절한 행동방식을 선택하는 역량은 어느 한 순간에 종착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길러지는 생애적인 발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Chu, 2014). 그러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남북한 가족생활문화의 다양성, 이질성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발달단계의 특성상 이성교제와 결혼 등의 주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면 통일 문제에 대한 흥미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통일대비 교육에 대한 심리적인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예비교사들에게 단순히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들로 하여금 북한가정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통일대비 가정생활교육의 효과를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생활분야의 경우에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유의한 차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예비교사들에게도 주택거래를 한 경험은 흔하지 않았으나, 남한에서의 주택거래 등에 대한 추가적 정보와 하모니카집 등 북한에서 나타난 특징적 주거형태와 에너지 수급문제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북한인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 에너지 문제, 이웃관계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측면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문제를 향한 세계적 노력에 대한 고려와 코하우징 등의 다양한 대안적 주거방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통일한국의 미래 주거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더불어 타문화에 대한 수용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식생활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차시 수업에서는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북한음식을 이해함으로써 실제 모의수업에서 북한음식을 직접 만드는 활동수업을 진행하였다. 10차시 수업의 경우도 북한과 남한의 대비되는 식량사정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여 모의수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수업이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북한음식과 식생활문화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제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학생들의 북한 생활상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북한음식을 함께 만들어보고 시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북한식생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의생활분야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생활 수업의 경우, 북한의 패션과 의생활에 관련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1차시 수업에서는 북한에서의 의생활 관련 정책을 규제 위주로 살펴보았고, 북한의 언론과 남한의 언론에 비쳐진 북한의 패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12차시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본 북한에서의 의생활에 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북한의 패션과 스타일 동조 현상에 대하여 언급되었으며, 예비교사들은 자본주의의 산물로 여겨지는 패션현상이 북한에도 존재함에 대하여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패션에서의 차이에 대하여 어떤 패션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문화마다 미적 기준이 다르고 이러한 미적 기준이 늘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예비교사들은 폐쇄적인 사회로 여겼던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장마당과 매체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동시에 언론에서 지나치게 남북 간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타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비교사들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추후에 이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통일대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처럼 서로의 입장과 관점을 공유하고 그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여 나름대로의 합의를 시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의 문화를 남한의 문화보다 열등하게 보는 시각을 배제하고 다문화 감수성과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예비교사들은 인권유린적인 북한의 정책과 폐쇄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과 자문화중심주의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들 스스로가 북한문화에서 무엇을 '다름'으로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을 비판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통하여 북한의 문화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 가는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 이러한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며 추후에 중등 학생들에게 통일대비 가정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주체로서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실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한 학기 수업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효과 및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개선점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남한에서 접근가능한 자료들만을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으며 TV 등의 매체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서 실제 북한에서의 가정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내용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Ahn, J-Y (2015). A study on a gender approach to North Korean films.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8*(1), 46-89.

Ahn, M-S (2002). A study of the leisure life and sporting activities of the ordinary people in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2), 119-131.

Bae, H-D (2009). *새로운 통일교육론*. Daegu: Kyungbook University Press.

Bae, S-Y & Chung, Y-H (2015). 보도자료. *Korea Consumer Agency*.

Baek, S-D & An, T-J (2016).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national identity on their unification consciousnes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4*(1), 39-58.

Bang, Y-J (2007). A study on the unification culture of juveniles and the assignment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in schools. *Ethical Culture*, *3*, 67-96.

Chang, N-S & Hwang, J-Y (2000). Food shortage, nutritional deprivation, and reduced body size in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3*(5), 540-547.

Chi, S-A & Kim, S-J (1999). A study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outh、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9*(1), 1-23.

Cho, E-H (2010). North Korean social research trend and problem.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3*(1), 39-66.

Cho, J-M & Han, J-T (2014).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national identity on their unification consciousness. *East-West Studies, 26*(1), 149-178.

Choi, C-H (2001). 북한의 음악: 대중 가요. 통일경제, 75, 64-71

Choi, M-K, Kim, M-J & Kang, M-H (2015). Awareness survey on Korean traditional festival food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East Asian Society of Dietary life, 25*(4), 565-573.

Choue, R-W, Hong J-Y, & Yim J-E (1997). The changes of dietary intakes in the defectors from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4), 470-476.

Choy, H-S (2016). A study on the change of clothing culture of

North Korea under the regime of Jong Un Ki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6), 122-134.

Chu, B-W (2014).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he unification education. *Journal of Moral and Ethics Education, 33*, 353-373.

Chung, M-K (2008).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family & consumer life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1*(1), 129-152.

Chung, M-K & Hwang, H-K (2007).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clothing & textiles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4), 145-170.

Chung, M-K & Kim, Y-J (2008). A study on strategie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dietary life and housing area of Practical Art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1*(2), 157-177.

Chung, S-H & Lim, J-H (2014). A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y valu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4), 97-127.

Do, H-Y (1999).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consciousnes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ident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3*(2), 83-96.

Han, K-H et al. (2013).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No. 2*. Seoul: Jihaksa.

Heo, S-K (2010). *The study on practical experiences of parents from North Korea regarding their children's education: Focusing on the different educational syste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eoul, Korea.

Hwang, I-P (2016). 학교통일교육에서의 통일교육 쟁점들.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639-658.

Hwang, J-Y & Chang, N-S (2001). Dietary patterns and nutrient intake in North Koreans by utilizing literature search and survey.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6*(3), 371-379.

Hyun, J & Ahn, J-H (2015). Study about change of North Korean sports policies.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20*(3), 145-161.

Hyun, J & Kim, D-S (2014).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s` physical Sojo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19*(2), 159-174.

Jo, H-J (2007). Study on measures to promote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 Focusing on high schools. *North Korea Studies, 3*(1), 123-147.

Joo, J-H (2015). Musical politics of North Korea—Focusing on five revolutionary operas. *Social Science Research, 31*(1), 133-159.

Kang, C-H (2015). 북한의 주요 명절과 주민들의 여가 생활. *Institute of North Korea Studies, 517*, 98-103

Kang, G-S & Lee, H-W (2016). History education textbooks and unification education : A content analysis on history education textbooks for middle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History Education Research, 25,* 223-258.

Kang, J-W (2010). the state and family in the two Koreas: The change of the state system and the transformation of familis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5), 139-175.

Kim, C-D (2007). The development and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Proceedings of the 2007 Fall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Symposium.* 47-81.

Kim, K-S (1995). *Comparative study on the pre-school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Kim, M-H (2016). *A study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lothing life: Actual condition of clothing in North and adaptation process in S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Kim, M-J (2013). Type and system of North Korean TV drama. *The Journal of Korea Culture Technology, 16,* 27-53.

Kim, S-H (2012). Study on the consumption trend phenomenon in North Korea after 1990: Based on the experiences of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6*(1), 191-217.

Kim, S-S, Han, H-C & Lee, H-R (2006).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tourism realities through a surve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and Leisure, 18*(4), 381-397.

Kim, Y-N (201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iveness indicators a unified educational model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Education. 51*, 259-278.

Kim, Y-H (2014). 북한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USKI(US-Korea Institute)*

Kim, Y-S (2011). 북한의 도덕과 예의범절 및 가정의례에 대하여. *동양예학, 24*, 81-117.

Lee, H-J (2014). *A study on the current condi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it: Emphasis on the survey of unification awareness of Korea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Lee, H-N, Kim, Y-K, Song, J-E, Lee, Y-Y, Lee, Y-S, Lee, Y-J, Lim, J-H, Jung, M-Y, An, S-H, Chung, S-H & Han, Y-S (2016). Development of North Korean family living culture education program for South Korean adolescent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of Korea. *Poster Presented at the 2016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ome Economics Congress,* August, Daejeon, South Korea.

Lee, H-I (2000). 북한 영화와 연구현황. 한국예술종합학교논문집, 3, 65-89

Lee, J-C (2011). A study of Chosun Central TV programs in 2000s.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23*(2), 195-226.

Lee, M-J (2012). *A comparative Study on the lyrics of the Korean song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College of Humanities Department of Creative Literature.

Lee, M-K (2014). A study of the effective ways of improving the college students' positive perceptions on unifi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70*, 175-195.

Lee, S-K & Nam, S-Y (2012). Comparison of food and nutrient consumption status between displaced North Korean children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n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7*(4), 407-417.

Lee, Y-R & Choi, Y-J (2012). Competitiveness of the clothing and textile industry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8), 885-899.

Lee, H-N, Choi, J-O, Lee, Y-J, & Lee, Y-Y (2015).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s, related to clothing and textil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and Fashion, 15*(2), 37-47.

Lee, Y-J, Seo, M-H, Kim, S-H & Park, Y-J (2011). *A study on child-care in North Korea for preparation of unification* (Research Report, 2011-19). Seoul: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Lim, J-H & Chung, S-H (2015). The value of children i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3*(6), 77-95.

Lim, J-H, Chung, S-H, & Song, J-E (2016). Comparis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terminologies in child and family domains of family life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2), 61-78.

Lim, J-T (1996).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 97-126.

Ministry of Unification (2012).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Ministry of Unification (2015). 통일백서.

Ministry of Unification (2016).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Retrieved from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7&mode= view&cid=47205

Ministry of Unification homepage (2015). http://www.unikorea.go.kr

Park, K-Y (2006).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서울: 경덕출판사.

Park, B-J (2010). A study on combining welfare resources preparing of Korean reunification: A case study of Germany reunification.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2), 197-216.

Park, Y-S, Rhee, K-C, Lee, K-Y, Rhee, E-T, Yi, S-H, Kim, D-N & Choi, Y-S (1997). A glance at the health status and food intake of North Korean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2*(3), 396-405.

Park, Y-S, Rhee, K-C, Lee, K-Y, Rhee, E-T, Yi, S-H, Kim, D-N, Choi, Y-S, & Seok, D-B-R. (1999). Dietary living in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defector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4*(1), 64-73.

Park, J-Y, Kim, Y-P & Yun, D-K (2003). The study of comparison with industrial standard of South-North Korea in clothing.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6*(4), 1-5.

Park, Y-S & Won, H-I (2010). 북한이탈주민의 소비실태 및 소비의식 조사 연구. *Korea Consumer Agency, 10*(8), 61-156.

Rhee, K-C, Lee, K-Y, Rhee, E-Y, Yi, S-H, Kim, D-N, Park, Y-S, Park, Y-S, Min, H-S & Park, M (2000). Analysis of consumption patter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differences from South Koreans based on the study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18*(4), 57-74.

Rhee, K-C, Lee, K-Y, Rhee, E-Y, Yi, S-H, Kim, D-N, Park, Y-S, Choi, Y-S (1998).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 (2).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6*(11), 231-250.

Rhee, K-C, Lee, K-Y, Rhee, E-Y, Yi, S-H, Park, Y-S, Kim, D-N, & Choi, Y-S (1997). South and North Korean living cultures: Their differences and integration(1).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6), 289-315.

Rhee, K.-C & Nah, J-Y (2007). North Korean defectors as consumers : Their recollection of consumption experience in North Korea and consumer adaption experience in South Korea.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3*(2), 101-122.

Ryu, K-A & Kim, Y-H (2012). A Jasmine revolution in North Korea? Looking for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North Korean regime change. *North Korean Studies Review, 16*(1), 399-431.

Ryoo, K-J (1999). The metamorphosis of the North Korean state and policy limit of the Kim Jong Il regime. *North Korean Studies Review, 3*(1), 5-32.

Seo, H-S (2016). Study on the ident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a basic subject for thinking.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3*, 415-443.

Seong, Y-H & Kim, S-J (2001). A comparative study on the day care systems for childre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2*, 108-133.

Song, S-B (2006). 북한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Reunification Theses Collection, 5,* 175-189.

Tudor, D. & Pearson, J. (2015).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Tokyo: Tuttle publishing.

Yang, O-S (1996). A comparison of child care service i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93-112.

You, S-R & Im, S (2006). Comparative study on costume culture South/North Korea after 1945 year.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9*(2), 173-181.

<국문요약>

본 연구는 예비 가정과교사들의 남북한 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을 고양시킴으로써 중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북한의 가정생활문화의 전반적 측면들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양성기관의 가정교육과 학부학생들 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15차시의 150분짜리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첫 3회의 수업은 가정생활문화와 다문화주의를 정의하고, 남북간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포함하는 도입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의 9차시 동안에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를 5개의 영역(소비 및 여가생활, 가족생활 및 양육,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마지막 2차시 동안에는 예비교사들이 설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가지고 수업실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전반적인 교수 효능감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도의 변화를 대응표본 *t*-검증으로 검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의 남북한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고양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7년 02월 02일, 논문심사일자: 2017년 0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3월 28일